ORIGINAL ARTICLE

pISSN 1226-6396, eISSN 2234-4942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17;28(2):61-72
https://doi.org/10.7231/jon.2017.28.2.061

JON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중학생에서 음양 기질과 문제 행동의 관련성

이수진, 한상윤*, 김희영*, 최미화, 채 한*

경일대학교 보건안전대학 심리치료학과, 부산대학교 한의학과 양생기능의학부*

Yin-Yang Temperament and Psychopathological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Soo Jin Lee, Sang Yun Han*, Hee Young Kim*, Mi Hwa Choi, Han Chae*

Department of Psychotherapy, School of Nursing and Public Health, Kyungil University, *Division of Longevity and Biofunction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April 7, 2017
Revised: June 16, 2017
Accepted: June 23, 2017

Correspondence to
Han Chae
Division of Longevity and Biofunction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30 Jangjeon-dong, Geumjeong-gu, Busan, Korea.
Tel: +82-51-510-8470
Fax: +82-51-510-8470
E-mail: han@chaelab.org

Objectives: The Yin-Yang temperament and the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 were reported to have relations with psychopathological problems in adolesc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domains of Yin-Yang temperament influence on problem behaviors i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Subjects of 681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completed the SPQ for measuring Yin-Yang temperament and the Youth Self-Report (YSR) for measuring problem behaviors. The differences of problem behaviors between Yin and Yang temperament groups were tested with T-test and profile analysis. The associations of the SPQ subscales on problem behaviors was also examined with Pearson's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Results: Yang temperament was related to the externalizing problem while Yin temperament to the internalizing problem. The Emotionality and Behavior dimension of Yin-Yang temperament were found to be a factor of susceptibility and resilience for problem behaviors, respectively. Three dimensions of Yin-Yang temperament have different influences on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depending on the sex and Yin-Yang temperament groups of subjects.

Conclusions: The Yin-Yang temperament would be useful for predicting and preventing the problem behavi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This study would be useful for screening the psychopathological problems and helping Korean adolescents to develop healthy character.

Key Words: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Psychopathological behavior, Youth Self-Report, Yin-Yang temperament,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Copyright © 2017 by The Korean Society of Oriental Neuropsychiatr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청소년들은 사춘기를 맞이함에 따라 급격한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와 함께 진학과 관련된 학업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면서 다양한 정신병리적 문제행동(problem behaviors)을 경험하게 된다[1]. 청소년기 특히 중학생에 있어서의 문제행동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북한이 남한과 전쟁을 못하는 이유가 '중2병'이 무섭기 때문"이라고 회자되기도 한다.

이에,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제도적 접근으로서 '인성교육진흥법'[2]이나 Wee 프로젝트[3]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며, 교육학을 비롯하여 심리학 및 의학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심리적 문제들(psychological problem)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평생 유지될 건전한 정신건강의 토대를 마련할 뿐 아니라 문제의 해결과정에 투입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1].

한의학에 있어서도 심신의 전일적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4-6]. 한의학은, 음양오행과 장상론 등을 사용하여 정서의 생리심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신양생법을 활용하여 통일된 자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7]. 그러나, 음양과 같은 동양학문은 20세기 맹목적 근대화 과정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추상적 개념으로 저평가되었으며[8], 음양(陰陽)으로 정리된 다양한 지식과 경험들은 의료현장에서 소외되어 왔다[9].

최근, 생리심리적 측면에서의 음양을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생리심리 검사가 개발되면서 음양 기질을 활용한 의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사상성격검사(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10]는 초등학생[11]부터 중학생[12] 및 고등학생[13]과 20대~70대 성인[14,15]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타당화가 이루어졌으며, 서양의 생리심리학 이론들과의 구성개념 비교[8]를 통해 생물학적 기질을 안정적으로 측정하는 통합의학의 도구로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SPQ 하위척도에 대한 연구에서, 음양기질은 정서적 측면에서는 정신병리 특성[1]과, 행동적 측면에서는 활력(vitality)[16]과 각각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문제행동에 대한 임상경험을 토대로 개발된 청소년 문제행동 척도(Youth Self-Report, YSR)[1,17]는 청소년의 행동, 감정, 사회 활동 등에서의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정신병리 검사 도구로서, 선행연구를 통해 음양과 같은 생물학적 기질과 유의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과도한 통제로 인한 감정적 불안과 우울을 주 증상으로 하는 YSR 내재화 문제는 높은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와 부적 정서(negative affectivity)와 관련이 있으며[18], 제어되지 못한 외적 행동인 공격성이나 과잉행동을 주 증상으로 하는 YSR 외현화 문제는 충동성과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되었다[18]. 높은 위험회피(Harm-Avoidance, HA)는 YSR 내재화 문제와 관련되며[19,20], 높은 자극추구(Novelty-Seeking, NS)는 품행문제 아동 혹은 YSR 외현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확인되었다[19,21,22]. 아울러, 성인에서의 우울이 위험회피(HA)와는 정적 상관을, 자극추구(NS)와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알려졌다[23,24].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위험회피(HA)와 자극추구(NS)가 각각 음(陰) 기질 및 양(陽) 기질과 유의한 상관성을 지닌다는 선행 연구[8]나, 고등학생에서의 YSR과 SPQ간의 유의한 상관성[1] 등을 고려한다면, 문제행동과 음양기질 간의 상관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중학생을 대상으로 음양기질을 측정하는 SPQ와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YSR를 함께 시행하고, 중학생의 문제행동이 음양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음양기질로 문제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을 나누어 음양 기질에 따른 문제행동 프로파일을 제시하였으며, 행동, 인지 및 감정적 차원에서의 음양기질이 YSR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끼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의학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및 생활 지도와 학생 정신건강 관리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25].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진행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 중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사상성격검사(SPQ)와 청소년 문제행동척도(YSR)를 시행하였다. 응답한 705명에 있어서, 모든 문항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24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81명의 데이터를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

는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전 승인(2014/11/26-001) 이후에 진행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들은 사전에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 연구 도구

1) 사상성격검사(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

사상성격검사(SPQ)[10]는 심리적 음양 기질을 측정하는 14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로, 선행연구를 통해 생리심리적 구조, 구인 타당화 및 임상적 타당화가 보고되었다[10,15,26-28].

각 문항은 성격적 특성을 설명하는 상반되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 가지 답변 중 하나를 선택하는 3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예, 1=큰 편, 2=중간편, 3=작은 편). SPQ는 기질의 행동적 측면(SPQ-B), 인지 또는 의사결정 측면(SPQ-C), 감정적 측면(SPQ-E)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SPQ 총점 기준 상위 30%는 양(陽)기질 그룹으로, 하위 30%는 음(陰)기질 그룹으로 구분된다. 양기질 및 음기질 그룹의 생병리 특성[11,14,29]들을 선행연구들[8,14,27,30]을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기질 그룹은, 자신의 의견을 능동적,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현한다. 결정이 쉽고 빠르며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잘 드러낸다. 신체적으로는 소화 기능이 좋으며, 변비로 인한 가슴의 뜨거워짐과 답답함, 양의 발산 부족으로 발생하는 울열증(鬱熱證), 과도한 활동으로 신체 기능의 과로나 음허증(陰虛證)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음기질 그룹은,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며 수동적이다. 천천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신의 생각을 돌려서 표현하며,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밖으로 느낌을 드러내지 않는다. 신체적으로는 소화기능이 허약하며, 미약한 기혈로 인한 허열(虛熱), 양기(陽氣)를 상승시키는 기능이 부족하여 복통과 설사와 같은 한증(寒證)을 동반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있어서 Cronbach's alpha로 분석한 SPQ 총점, SPQ-B, SPQ-C, SPQ-E의 내적일치도는 남학생이 각각 0.712, 0.752, 0.395, 0.551이었으며, 여학생이 각각 0.680, 0.759, 0.476, 0.420이었다.

2) 청소년 문제행동척도(Youth Self-Report; YSR)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문제행동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청소년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119문항 Youth Self Report (YSR)가 사용되었다. YSR은 행동, 감정, 사회활동 등에 있어서의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Achenbach System of Empirically Based Assessment (ASEBA) 도구의 일부이다[1,17].

YSR은 상위척도로서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그리고 총문제행동을 제시하며, 임상 경험을 통해 타당화된 8개의 하위척도 및 기타문제로 이루어져 있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불안/우울, 위축/우울 그리고 신체증상의 3가지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현화 문제행동은 규칙위반과 공격행동의 2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총문제행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비롯하여 사회적 미성숙, 사고 문제, 주의집중 문제의 3가지 하위척도와 기타문제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검자는 지난 6개월간의 자신의 행동을 3점 Likert 척도(0=전혀 사실이 아님, 1=다소 또는 때때로 사실, 2=매우 사실 또는 종종 사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한국판 YSR은 2011년도에 표준화, 타당화되었으며, 만족할만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1].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로 분석한 총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의 내적 일치도는 각각 0.78, 0.75, 0.90로 확인되었다.

3. 통계분석

성별 및 학년별 분포에 있어서는 기술통계가 사용되었으며, 여학생과 남학생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에 있어 성별을 나누어 진행하였다. SPQ 총점을 기준으로 상위(30%), 중위(40%) 및 하위(30%) 그룹을 각각 양(陽), 불명확 및 음(陰) 기질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세 그룹간의 SPQ 및 YSR 하위척도의 비교에는 ANOVA를 사용하였다.

YSR 8개 하위척도 프로파일의 음양기질 그룹간 차이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프로파일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parallelism과 flatness를 계산함에 필요한 경우 Greenhouse-Geisser correction을 적용하였다. SPQ 하위척도가 문제행동 내재화 및 외현화에 주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Pearson's correlation과 regression analysis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의 결과는 빈도(%) 또는 평균±표준편차로 기술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 $p<0.01$, $p<0.001$로 설정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0.0 (IBM, Armonk, NY)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SPQ와 YSR 검사가 모두 이루어진 681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356명(52.3%), 여학생이 325명(47.7%)이었으며, 학년에 따른 분포는 1학년이 193명(28.3%), 2학년이 233명(34.2%), 3학년이 255명(37.5%)이었다(Table 1).

인구학적 분포에서는 SPQ 및 YSR 하위척도에 남녀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자는 여자에 비하여 SPQ 총점(29.12±4.3, 28.35±4.2) 및 SPQ-C (10.55±1.73, 9.69±1.89)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Table 1). 이와 함께, 여자는 남자에 비하여 YSR 내재화 문제행동(9.83±7.86, 7.73±7.4), 불안/우울(5.07±4.1, 3.96±3.71), 위축/우울(2.53±2.67, 2.13±2.48), 신체증상(2.23±2.68, 1.65±2.34), 사회적 미성숙(3.08±2.88, 2.5±2.69)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와는 상반되게 규칙위반(2.04±2.26, 1.68±2.01)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에서의 남녀간 차이를 고려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2. 남학생에서 음양 기질에 따른 SPQ 및 YSR의 차이

남학생에 있어서, 양기질과 음기질 그룹은 SPQ 및 SPQ-B, SPQ-C, SPQ-E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Table 2). YSR 총문제행동에 있어서 음-양기질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양기질 그룹은 음기질 그룹에 비하여 높은 YSR 외현화 문제행동(8.42±6.24, 6.17±4.82)과 낮은 YSR 내재화 문제행동(6.01±5.95, 9.55±7.72)을 나타냈다.

YSR 하위척도에 있어서, 양기질 그룹은 음기질 그룹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불안/우울(3.43±3.49, 4.64±3.85), 위축/우울(1.03±1.47, 3.32±2.82) 그리고 사회적 미성숙(2.1±2.25, 2.82±2.7) 점수를 보였으며, 공격행동(6.35±4.76, 4.48±3.66)에서는 이와 반대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Table 2). 양기질과 음기질 그룹 사이에 YSR 하위척도 프로파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그룹간 유의한

Table 1. The SPQ and YSR Subscales of the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in This Study

	Boys	Girls	
N (%)	356 (52.3%)	325 (47.7%)	
SPQ*	29.12±4.3	28.35±4.2	t=2.353, p=0.019
SPQ-B	11.05±2.42	11.04±2.44	t=0.042, p=0.967
SPQ-C***	10.55±1.73	9.69±1.89	t=6.162, p<0.001
SPQ-E	7.52±1.78	7.62±1.69	t=−0.719, p=0.472
YSR total	27.99±21.55	31.09±21.33	t=−1.886, p=0.060
Internalizing***	7.73±7.4	9.83±7.86	t=−3.58, p<0.001
Externalizing	7.25±6.21	7±5.77	t=0.53, p=0.597
Anxious/depressed***	3.96±3.71	5.07±4.1	t=−3.698, p<0.001
Withdrawn/depressed*	2.13±2.48	2.53±2.67	t=−2.056, p=0.04
Somatic complaints**	1.65±2.34	2.23±2.68	t=−3.025, p=0.003
Social problems**	2.5±2.69	3.08±2.88	t=−2.716, p=0.007
Thought problems	2.78±2.82	3.1±2.67	t=−1.504, p=0.133
Attention problems	4.27±3.35	4.43±3.25	t=−0.613, p=0.54
Rule-breaking behavior*	2.04±2.26	1.68±2.01	t=2.218, p=0.027
Aggressive behavior	5.2±4.39	5.32±4.27	t=−0.364, p=0.716
Others	3.46±2.62	3.66±2.75	t=−0.974, p=0.33

***p<0.001; **p<0.01; *p<0.05; SPQ: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B: SPQ Behavior, SPQ-C: SPQ-Cognition, SPQ-E: SPQ-Emotionality, YSR: Youth Self-Report.

Table 2. The SPQ and YSR Subscales Score of Yin-Yang Temperament Groups in the Middle School Boys

	Yang (Yang) (SPQ ≥32)	Uncertain (28 <SPQ <31)	Yin (Eum) (SPQ ≤27)	Total	ANOVA	Post-hoc analysis
n (%)	101 (28.37)	136 (38.20)	119 (33.43)	356 (100)		
SPQ***	34.25±2.11	29.39±1.11	24.45±2.42	29.12±4.3	F=713.298, p <0.001	Yang >uncertain >Yin
SPQ-B***	13.29±1.31	11.27±1.59	8.89±2.06	11.05±2.42	F=185.875, p <0.001	Yang >uncertain >Yin
SPQ-C***	12.02±1.36	10.63±1.13	9.21±1.53	10.55±1.73	F=120.133, p <0.001	Yang >uncertain >Yin
SPQ-E***	8.94±1.54	7.49±1.38	6.35±1.51	7.52±1.78	F=84.687, p <0.001	Yang >uncertain >Yin
YSR total	26.71±19.45	28.13±24.29	28.9±19.97	27.99±21.55	F=0.285, p=0.752	
Internalizing**	6.01±5.95	7.42±7.78	9.55±7.72	7.73±7.4	F=6.67, p=0.001	Yang <Yin
Externalizing*	8.42±6.24	7.32±7.09	6.17±4.82	7.25±6.21	F=3.645, p=0.027	Yang >Yin
Anxious/depressed*	3.43±3.49	3.76±3.68	4.64±3.85	3.96±3.71	F=3.266, p=0.039	Yang <Yin
Withdrawn/depressed***	1.03±1.47	1.9±2.34	3.32±2.82	2.13±2.48	F=27.778, p <0.001	Yang <uncertain <Yin
Somatic complaints	1.55±2.09	1.76±2.72	1.6±2.06	1.65±2.34	F=0.257, p=0.776	
Social problems	2.1±2.25	2.51±2.96	2.82±2.7	2.5±2.69	F=1.945, p=0.145	
Thought problems	2.47±2.27	2.85±3.12	2.97±2.89	2.78±2.82	F=0.931, p=0.395	
Attention problems	4.13±3.46	4.43±3.6	4.22±2.95	4.27±3.35	F=0.251, p=0.778	
Rule-breaking behavior	2.07±1.81	2.34±2.93	1.69±1.59	2.04±2.26	F=2.648, p=0.072	
Aggressive behavior**	6.35±4.76	4.99±4.55	4.48±3.66	5.2±4.39	F=5.337, p=0.005	Yang >Yin
Others	3.59±2.53	3.6±2.83	3.18±2.44	3.46±2.62	F=1.011, p=0.365	

***p <0.001; **p <0.01; *p <0.05; SPQ: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B: SPQ Behavior, SPQ-C: SPQ-Cognition, SPQ-E: SPQ-Emotionality, YSR: Youth Self-Report.

Table 3. The SPQ and YSR Subscales Score of Yin-Yang Temperament Groups in the Middle School Girls

	Yang (Yang) (SPQ ≥31)	Uncertain (27 <SPQ <30)	Yin (Eum) (≤26)	Total	ANOVA	Post-hoc analysis
n (%)	101 (31.08)	121 (37.23)	103 (31.69)	325 (100)		
SPQ***	33.18±1.88	28.37±1.04	23.59±2.3	28.35±4.2	F=735.39, p <0.001	Yang >uncertain >Yin
SPQ-B***	13.17±1.35	11.18±1.74	8.79±1.97	11.04±2.44	F=167.758, p <0.001	Yang >uncertain >Yin
SPQ-C***	11.28±1.46	9.52±1.39	8.34±1.61	9.69±1.89	F=101.13, p <0.001	Yang >uncertain >Yin
SPQ-E***	8.73±1.42	7.67±1.4	6.47±1.49	7.62±1.69	F=63.63, p <0.001	Yang >uncertain >Yin
YSR total	31.23±22.13	30.57±20.02	31.56±22.21	31.09±21.33	F=0.063, p=0.939	
Internalizing*	8.28±7.49	9.8±7.7	11.38±8.18	9.83±7.86	F=4.041, p=0.019	Yang <Yin
Externalizing**	8.36±6.59	6.87±5.18	5.83±5.32	7±5.77	F=5.043, p=0.007	Yang >Yin
Anxious/depressed	4.69±4.17	4.98±3.93	5.54±4.23	5.07±4.1	F=1.147, p=0.319	
Withdrawn/depressed***	1.41±1.75	2.46±2.5	3.72±3.09	2.53±2.67	F=21.667, p <0.001	Yang <uncertain <Yin
Somatic complaints	2.18±2.81	2.36±2.84	2.12±2.34	2.23±2.68	F=0.261, p=0.771	
Social problems	2.83±2.58	3.18±2.87	3.19±3.15	3.08±2.88	F=0.532, p=0.588	
Thought problems	3.05±2.52	3.01±2.4	3.25±3.1	3.1±2.67	F=0.256, p=0.774	
Attention problems	4.52±3.39	4.31±3.1	4.47±3.3	4.43±3.25	F=0.126, p=0.882	
Rule-breaking behavior	1.83±1.94	1.64±1.86	1.57±2.23	1.68±2.01	F=0.452, p=0.637	
Aggressive behavior***	6.52±5.07	5.22±3.82	4.26±3.58	5.32±4.27	F=7.515, p <0.001	Yang >Yin
Others	4.19±3.19	3.4±2.32	3.44±2.69	3.66±2.75	F=2.794, p=0.063	

***p <0.001; **p <0.01; *p <0.05; SPQ: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B: SPQ Behavior, SPQ-C: SPQ-Cognition, SPQ-E: SPQ-Emotionality, YSR: Youth Self-Report.

차이(flatness with Greenhouse-Geisser correction, df=5.697, F=92.309, p<0.001; parallelism with Greenhouse-Geisser correction, df=5.697, F=19.584, p<0.001)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여학생에서 음양 기질에 따른 SPQ 및 YSR의 차이

여학생에 있어서, 양기질과 음기질 그룹은 SPQ 및 SPQ-B, SPQ-C, SPQ-E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

었다(Table 3). YSR 총문제행동에 있어서 음-양기질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기질 그룹은 음기질 그룹에 비하여 높은 YSR 외현화 문제행동(8.36±6.59, 5.83±5.32)과 낮은 YSR 내재화 문제행동(8.28±7.49, 11.38±8.18) 점수를 지니고 있었다.

YSR 하위척도에 있어서(Table 3), 양기질 그룹은 음기질 그룹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불안/우울(8.28±7.49, 11.38±8.18) 및 위축/우울(1.41±1.75, 3.72±3.09) 점수를 보였으며, 공격 행동(6.52±5.07, 4.26±3.58)에서는 이와 반대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음양 그룹간의 내재화, 외현화, 불안/우울, 위축/우울, 공격행동 및 규칙위반 하위척도에서의 차이는 Fig. 1로 요약하였다.

양기질과 음기질 그룹 사이에 YSR 하위척도 프로파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flatness with Greenhouse-Geisser test, df=6.063, F=83.651, $p<0.001$; parallelism with Greenhouse-Geisser correction, df=6.063, F=17.280, $p<0.001$)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SPQ 및 YSR 하위척도간의 상관분석

전체 피험자를 대상으로 SPQ와 YSR 하위척도들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SPQ와 SPQ 하위척도인 SPQ-B, SPQ-C, SPQ-E간의 상관성 계수는 0.784, 0.696, 0.615로 확인되었다(Table 4). SPQ 총점은 YSR 내재화 문제행동(r=−0.107, $p<0.001$) 및 위축/우울(r=−0.198, $p<0.001$)과는 부적 상관을, YSR 외현화 문제행동(r=1.44, $p<0.001$)과 공격행동(r=0.132, $p<0.001$) 및 기타(r=0.078, $p<0.05$)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YSR 총문제행동이 SPQ 총점과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자세히 살펴본다면 SPQ 하위 척도들(SPQ-B (r=−0.113)과 SPQ-E (r=0.153))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방향으로의 유의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SPQ 하위척도와 YSR 하위척도들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SPQ-B는 총문제행동(r=−0.113, $p<0.01$) 뿐 아니라, 내재화 문제행동(r=−0.170, $p<0.001$) 및 불안/우울(r=−0.078, $p<0.05$), 위축/우울(r=−0.262, $p<0.001$), 사회적 미성숙(r=−0.119, $p<0.01$), 사고문제(r=−0.113, $p<0.01$)와 같은 문제행동 하위척도들과도 부적 상관성을 보였다. SPQ-E는 총문제행동(r=0.153, $p<0.001$) 뿐만 아니라, 내재화 문제행동(r=0.100, $p<0.01$), 외현화 문제행동(r=0.256, $p<0.001$), 불안/우울(r=0.132, $p<0.01$), 신체증상(r=0.111, $p<0.01$), 사회적 미성숙(r=0.123, $p<0.01$), 사고문제(r=0.088, $p<0.05$), 주의집중문제(r=0.178, $p<0.001$), 규칙위반(r=0.100, $p<0.01$), 공격행동(r=0.186, $p<0.001$), 기타 문제행동(r=0.187, $p<0.001$)과 같은 문제행동 하위척도들과도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

5. YSR에 대한 SPQ 하위척도를 사용한 회귀분석

남학생과 여학생에 있어서, 총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SPQ 하위척도들의 설명력을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회귀분석에 있어서, 성별과 음양기질 및 문제행동의 종류에 따라서 설명력의 크기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낮은 SPQ-B와 SPQ-C, 그리고 높은 SPQ-E가 중학생의 문제행동들을 설명하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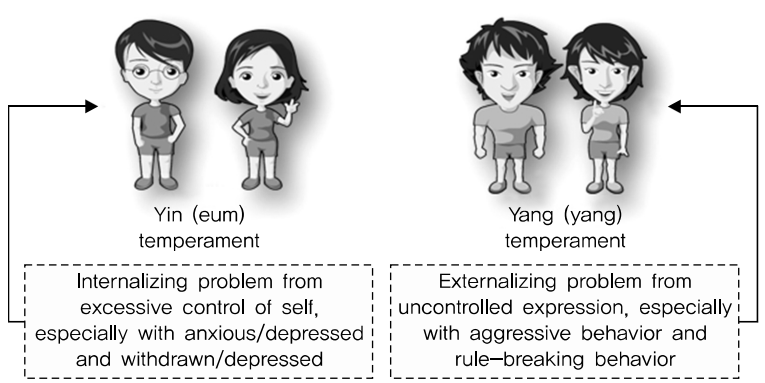

Fig. 1. Problem behaviors of Yin-Yang temperament groups.

Table 4.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Subscales of the SPQ and YSR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SPQ			YSR										
	SPQ-B	SPQ-C	SPQ-E	Total	Internalizing problem	Externalizing problem	Anxious/ depressed	Withdrawn/ depressed	Somatic complaints	Social problems	Thought problems	Attention problems	Rule-breaking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Others
SPQ	.784***	.696***	.615***	.010	−.107**	.144***	−.017	−.198***	.030	−.027	−.033	.052	.013	.132***	.078*
SPQ-B		.304***	.201***	−.113**	−.170***	.008	−.078*	−.262***	−.033	−.119**	−.113**	−.055	−.037	.057	−.026
SPQ-C			.213***	.028	−.117**	.080*	−.060	−.137***	.007	−.021	−.010	.025	−.015	.056	.038
SPQ-E				.153***	.100**	.256***	.132**	.025	.111**	.123**	.088*	.178***	.100**	.186***	.187***

***p<0.001; **p<0.01; *p<0.05; SPQ: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B: SPQ Behavior, SPQ-C: SPQ-Cognition, SPQ-E: SPQ-Emotionality, YSR: Youth Self-Report.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5).

총 문제행동에 있어서, 남녀 모두에 있어서 SPQ 하위척도가 전체 변량의 13.7%를 설명하였으며, SPQ-B와 SPQ-E가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내재화 문제행동에 있어서, SPQ 하위척도가 남학생에서는 15.9%를, 여학생에서는 14.1%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남학생에서는 SPQ-B와 SPQ-C, SPQ-E가 설명력을, 여학생에서는 SPQ-B와 SPQ-E가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외현화 문제행동에 있어서, SPQ 하위척도가 남학생에서는 9.6%를, 여학생에서는 15.6%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남학생에서는 SPQ-E가, 여학생에서는 SPQ-B와 SPQ-E가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6. 음양 그룹에 따른 YSR에 대한 SPQ 하위척도를 사용한 회귀분석

이상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음양 기질을 측정하는 SPQ 점수를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어 보았을때 SPQ 하위척도들이 YSR로 측정한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학생을 음양그룹을 나누고, SPQ 하위척도를 사용한 YSR 문제해동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총 문제행동에 있어서, 음기질 및 양기질 그룹 모두에 있어서 SPQ 하위척도가 각각 변량의 15.1%와 16.7%를 설명하였으며, SPQ-B와 SPQ-E가 설명력을 지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재화 문제행동에 있어서, SPQ 하위척도가 음기질 그룹에서는 19.3%를, 양기질 그룹에서는 18.7%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음기질 그룹에서는 SPQ-B와 SPQ-C가 설명력을, 양기질 그룹에서는 SPQ-E가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외현화 문제행동에 있어서, SPQ 하위척도가 음기질 그룹에서는 14.9%를, 양기질 그룹에서는 16.3%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음기질 및 양기질 그룹 모두에서 SPQ-E가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여학생을 음양그룹을 나누고, SPQ 하위척도를 사용한 YSR 문제해동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총 문제행동에 있어서, 음기질 및 양기질 그룹 모두에 있어서 SPQ 하위척도가 각각 변량의 15.1%와 16.7%를 설명하였으며, SPQ-B와 SPQ-E가 설명력을 지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재화 문제행동에 있어서, SPQ 하위척도가 음기질 그룹에서는 16.7%를, 양기질 그룹에서는 12.1%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두그룹 모두에서 SPQ-B가 설명력을 지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n Problem Behavior with the Subscales of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Boys						Girls				
	U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U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B	SE	β				B	SE	β		
Total problem											
SPQ-B***	−2.2544	0.3354	−0.2547	−6.7208	<0.001	SPQ-B***	−2.2544	0.3354	−0.2547	−6.7208	<0.001
SPQ-C	−0.4796	0.4393	−0.0415	−1.0917	0.2754	SPQ-C	−0.4796	0.4393	−0.0415	−1.0917	0.2754
SPQ-E***	3.9433	0.4564	0.3192	8.6393	<0.001	SPQ-E***	3.9433	0.4564	0.3192	8.6393	<0.001
	F (3,677)=35.689, p=0, R^2 (adj.R^2)=0.137 (0.133)						F (3,677)=35.689, p=0, R^2 (adj.R^2)=0.137 (0.133)				
Internalizing problem											
SPQ-B***	−0.756	0.163	−0.247	−4.635	<0.001	SPQ-B***	−1.142	0.174	−0.354	−6.575	<0.001
SPQ-C***	−0.969	0.227	−0.227	−4.270	<0.001	SPQ-C	−0.115	0.228	−0.028	−0.505	0.614
SPQ-E***	0.966	0.211	0.233	4.583	<0.001	SPQ-E**	0.861	0.249	0.185	3.454	0.001
	F (3,352)=22.152, p=0, R^2 (adj.R^2)=0.159 (0.152)						F (3,321)=17.562, p=0, R^2 (adj.R^2)=0.141 (0.133)				
Externalizing problem											
SPQ-B	−0.034	0.142	−0.013	−0.240	.811	SPQ-B*	−0.307	0.126	−0.130	−2.427	0.016
SPQ-C	−0.220	0.197	−0.061	−1.113	.267	SPQ-C	0.228	0.166	0.075	1.377	0.169
SPQ-E***	1.114	0.183	0.320	6.073	<0.001	SPQ-E***	1.287	0.181	0.377	7.100	<0.001
	F (3,352)=12.5, p=0, R^2 (adj.R^2)=0.096 (0.089)						F (3,321)=19.848, p=0, R^2 (adj.R^2)=0.156 (0.149)				

***p<0.001; **p<0.01; *p<0.05; SPQ: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B: SPQ Behavior, SPQ-C: SPQ-Cognition, SPQ-E: SPQ-Emotionality.

Table 6. Regression Analysis on Problem Behavior with the Subscales of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in the Middle School Boys

	Yin (Eum) group						Yang (Yang) group				
	U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U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B	SE	β				B	SE	β		
Total problem											
SPQ-B***	−2.7324	0.6329	−0.2644	−4.3171	<0.001	SPQ-B**	−3.0694	1.1435	−0.1921	−2.6841	0.008
SPQ-C	−0.6787	0.7817	−0.0528	−0.8682	0.3861	SPQ-C	−1.461	1.0927	−0.0962	−1.337	0.1829
SPQ-E***	3.3656	0.8319	0.2441	4.0454	<0.001	SPQ-E***	4.6333	1.0736	0.3097	4.3155	<0.001
	F (3,246)=14.58, p=0, R^2 (adj.R^2)=0.151 (0.141)						F (3,176)=11.768, p=0, R^2 (adj.R^2)=0.167 (0.153)				
Internalizing problem											
SPQ-B**	−.984	.325	−0.262	−3.025	0.003	SPQ-B	−0.321	0.425	−0.070	−0.754	0.453
SPQ-C**	−1.410	.440	−0.280	−3.208	0.002	SPQ-C	−0.406	0.404	−0.093	−1.006	0.317
SPQ-E	.837	.451	0.164	1.855	0.066	SPQ-E***	1.532	0.363	0.396	4.218	<0.001
	F (3,115)=9.143, p=0, R^2 (adj.R^2)=0.193 (0.172)						F (3,97)=7.451, p=0.0002, R^2 (adj.R^2)=0.187 (0.162)				
Externalizing problem											
SPQ-B	0.094	0.209	0.040	0.451	0.653	SPQ-B	−0.756	0.453	−0.158	−1.669	0.098
SPQ-C	−0.224	0.282	−0.071	−0.795	0.428	SPQ-C	−0.169	0.431	−0.037	−0.392	0.696
SPQ-E***	1.173	0.289	0.367	4.051	<0.001	SPQ-E**	1.385	0.387	0.341	3.579	0.001
	F (3,115)=6.692, p=0.0003, R^2 (adj.R^2)=0.149 (0.126)						F (3,97)=6.291, p=0.0006, R^2 (adj.R^2)=0.163 (0.137)				

***p<0.001; **p<0.01; *p<0.05; SPQ: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B: SPQ Behavior, SPQ-C: SPQ-Cognition, SPQ-E: SPQ-Emotionality.

니고 있었다. 외현화 문제행동에 있어서, SPQ 하위척도가 음기질 그룹에서는 12.1%를, 양기질 그룹에서는 10.4%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음기질 그룹에서는 SPB-B와 SPQ-E가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양기질 그룹에서는 SPQ-E만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YSR과 음양기질을 측정하는 SPQ를 사용하여 중학생의 문제행동과 음양(陰陽) 기질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양(陰陽)이 청소년 정신병리를 분석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임상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7. Regression Analysis on Problem Behavior with the Subscales of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in the Middle School Girls

	Yin (Eum) group						Yang (Yang) group				
	U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U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B	SE	β				B	SE	β		
Total problem											
SPQ-B***	−2.7324	0.6329	−0.2644	−4.3171	<0.001	SPQ-B**	−3.0694	1.1435	−0.1921	−2.6841	0.008
SPQ-C	−0.6787	0.7817	−0.0528	−0.8682	0.3861	SPQ-C	−1.461	1.0927	−0.0962	−1.337	0.1829
SPQ-E***	3.3656	0.8319	0.2441	4.0454	<0.001	SPQ-E***	4.6333	1.0736	0.3097	4.3155	<0.001
	F (3,246)=14.58, p=0, R^2 (adj.R^2)=0.151 (0.141)						F (3,176)=11.768, p=0, R^2 (adj.R^2)=0.167 (0.153)				
Internalizing problem											
SPQ-B***	−1.623	0.352	−0.392	−4.607	<0.001	SPQ-B*	−1.505	0.677	−0.264	−2.225	0.029
SPQ-C	−0.333	0.423	−0.066	−0.786	0.433	SPQ-C	−0.786	0.679	−0.142	−1.157	0.251
SPQ-E	0.566	0.450	0.103	1.259	0.210	SPQ-E	0.986	0.722	0.162	1.366	0.176
	F (3,127)=8.517, p=0, R^2 (adj.R^2)=0.167 (0.148)						F (3,75)=3.443, p=0.0209, R^2 (adj.R^2)=0.121 (0.086)				
Externalizing problem											
SPQ-B*	−0.503	0.234	−0.188	−2.150	0.033	SPQ-B	−0.610	0.576	−0.127	−1.058	0.293
SPQ-C	0.094	0.281	0.029	0.335	0.739	SPQ-C	−0.146	0.578	−0.031	−0.253	0.801
SPQ-E**	0.910	0.299	0.257	3.049	0.003	SPQ-E*	1.391	0.614	0.271	2.264	0.027
	F (3,127)=5.819, p=0.0009, R^2 (adj.R^2)=0.121 (0.1)						F (3,75)=2.912, p=0.0399, R^2 (adj.R^2)=0.104 (0.068)				

***p<0.001; **p<0.01; *p<0.05; SPQ: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B: SPQ Behavior, SPQ-C: SPQ-Cognition, SPQ-E: SPQ-Emotionality.

SPQ는 초등학생부터 70대 성인까지의 전 연령 타당화[11-14]가 완료되었으며, 다양한 생병리 특성[9,16]과 한의학 임상[1,10,11,14], 다학제 연구[9]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음양(陰陽)은 서로 상반되어 대립하면서도 동시에 보완적인 특성이나 사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남-여, 내성적-외향적, 밤-낮, 해-달, 뜨겁고-차고, 물-불, 하늘-땅 등을 예시할 수 있다[8]. 임상에서의 병리적 증상들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온 음양은, 본 연구에 있어서 내재화와 외현화라는 정신병리적 특성 그리고 여학생과 남학생이라는 성별과 유의한 상관성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었다. 임상 경험을 토대로 문제행동을 분류한 YSR에 있어서, YSR 내재화는 한의학에 있어서의 음(陰)적 특성과, YSR 외현화는 양(陽)적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1,17]. 과거의 유물로 평가절하되었던 음양이, 생리심리 검사도구인 SPQ의 사용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 가능한 유용한 임상 도구라는 것이 재확인된 것이라 하겠다.

결과 분석에서 볼 때, 음양 기질이 문제행동의 발생 자체와는 무관하였지만, 발생되는 문제행동의 종류와는 유의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Table 2～4, Fig. 1), 음기질(SPQ 하위 30%)은 YSR 내재화 문제행동과, 양기질(SPQ 상위 30%)은 YSR 외현화 문제행동과 유의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있어서[1], 양(陽)기질을 지닌 청소년은 규칙위반 행동과 공격성 행동과 같이 외적 발현을 제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YSR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게 되며, 음(陰)기질을 지닌 청소년은, 불안, 우울, 위축, 신체화증상과 같이 스스로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YSR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이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질 및 성격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를 사용하여 청소년에서의 문제행동을 연구하였던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는데, 이는 기존 연구를 고려할 때 충분히 예상된 결과라 할 것이다. YSR 외현화 문제행동은 자극추구(NS)와, YSR 내재화 문제행동은 위험회피(HA)와 관련되어 있으며[19-22], SPQ는 자극추구(NS)와 정적 상관을 위험회피(HA)와는 부적상관을 지닌다[8]고 보고되었다.

SPQ의 하위척도에 대한 분석 결과, 음(陰)적인 행동 및 인지 특성(낮은 SPQ-B와 낮은 SPQ-C)은 보호요인으로서, 양(陽)적인 정서 특성(높은 SPQ-E)은 위험요인으로서 중학생에서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Table 4～7), 성별과 음양기질 그룹 및 문제행동의 종류에 따라서 영향력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험요인인 SPQ-E 점수는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크게 반응하며, 변화의 폭이 크고, 밖으로 자신의 감정이 잘 표출되는

기질을 의미하며, 보호요인인 SPQ-B 점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기질을 의미한다[8,10].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낮은 SPQ-B, SPQ-C 점수와 높은 SPQ-E 점수를 지니는데, 이는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시키지 않고, 꼼꼼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돌려서 표현하며,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잘 표현하는 기질을 의미한다. 문제행동이 잘 발생하지 않는 청소년은 높은 SPQ-E, SPQ-C 점수와 낮은 SPQ-E 점수를 지니는데, 자신의 의견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며, 결정이 쉽고도 빠르며,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좋아하고, 평소 조용한 차분한 감성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느낌을 드러내지 않는 기질을 의미한다[1,8,10].

이러한 결과는, SPQ 하위척도에 대한 선행연구와 유사한데, SPQ-B는 삶의 질(SF12)에 있어서 활력(vitality)과 정적 관련성[16]을 지니며, SPQ-E는 정신병리적 문제와 정적 관련성[1]을 지니는 것이 보고되었다. 다만, 한의학에서의 SPQ-E는 큰 폭 또는 많은 양의 감정변화를 의미하는 정서의 변동성 또는 변화량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서양 심리학 및 의학에서 오랫동안 정신병리의 원인으로 제시되어 정서적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불안(anxiety)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8].

성별 또한 문제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성별에 따라 발현되는 문제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Table 1), 여학생에서는 YSR 내재화와 관련된 우울, 위축,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점수가 높았고, 남학생에서는 YSR 외현화의 일부인 규칙위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남학생의 YSR 내재화 문제행동에 있어서는 양적 인지특성(높은 SPQ-C)이 추가적인 보호요인이 되며, 남학생의 YSR 외현화 문제행동에 있어서는 양적 행동특성(높은 SPQ-B)이 보호요인이 되지 못하는 것도 확인되었다(Table 5).

성별과 함께 음양 기질이 동시에 고려되었을 때에는, 이들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SPQ 하위척도들의 설명력이 증가 혹은 축소되는 것도 확인되었다. 음기질을 지닌 남학생에 있어서, YSR 내재화 문제행동에 있어서 양적 인지특성(높은 SPQ-C)이 추가적인 보호요인이 되면서 음적 정서성(낮은 SPQ-E)의 영향력이 사라졌으며, YSR 외현화 문제행동에 있어서는 양적 행동특성(높은 SPQ-B)의 영향력이 사라졌다. 양기질을 지닌 남학생에 있어서, YSR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양적 행동특성(높은 SPQ-B)의 영향력이 사라졌다(Table 6). 음기질을 지닌 여학생에 있어서, YSR 내재화 문제행동에서 음적 정서성(낮은 SPQ-E)의 영향력이 사라졌으며, 양기질을 가진 여학생의 경우에는 YSR 내재화 문제행동에서는 음적 정서성(낮은 SPQ-E)의 영향력이, YSR 외현화 문제행동에서는 양적 행동특성(높은 SPQ-B)의 영향력이 소실되었다(Table 7).

본 연구는, 오랜 기간 사용되었던 음양(陰陽)의 서사적 정의(narrative definition)를 업그레이드하여 과학적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로 재정립[8,10]한 이후, 이를 임상 진단과 스크리닝까지 확장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한의과대학 재학생 및 국내외 의료인에게 한방생리심리학과 정신병리학을 교육함에 있어 SPQ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청소년의 건강검진에 도입하여 정신병리적 문제의 스크리닝에 활용한다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생활지도, 정신양생 및 변증과 약물치료가 가능할 것이다[1]. 교육적 측면에서는, 보호요인이 되는 양적 행동 및 인지특성(SPQ-B 및 SPQ-C)의 발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호연지기(浩然之氣), 의사소통과 사회성을 함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위험요인으로서의 음적 정서특성(SPQ-E)를 관리하기 위하여 격한 감정변화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동양적 명상, 마음챙김과 자아성찰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7].

한의학적 치료[11,28]에 있어서, 높은 SPQ 점수를 지닌 양인(陽人)은 공격성이나 규칙위반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좋은 소화 기능, 변비로 인한 가슴의 뜨거워짐과 답답함, 양의 발산 부족으로 발생하는 울열증(鬱熱證), 과도한 활동으로 신체 기능의 과로나 음허증(陰虛證) 등의 증상을 동반하므로, 치료에 있어서 해울열(解鬱熱) 및 보음(補陰)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낮은 SPQ 점수를 지닌 음인(陰人)은 불안/우울 위축/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생병리 특징으로서 기혈을 만드는 소화기능이 허약하고, 미약한 기혈로 인한 허열(虛熱), 양기(陽氣)를 상승시키는 기능이 부족하고, 복통이나 설사와 같은 한증(寒證)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치료에 있어서 보비위(補脾胃) 및 보온열(補溫熱)를 통한 기혈(氣血)의 보충이 정신병리적 치료에 함께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일반화시킴에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SPQ 및 YSR에 있어서 남녀간의 확연한 차이가 확인되었다(Table 1). 여성

에 있어서 YSR 내재화 문제행동, 우울, 위축,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이 높게 나타났으며, 규칙위반과 SPQ-C (음적 인지특성)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차이가 다른 문화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SPQ와 다른 정신병리적 혹은 불안 특성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SPQ 총점과 YSR 총문제행동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는 점이나, SPQ 총점과 신경증(Neuroticism) 및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는 선행연구들[10,27]을 고려한다면, SPQ 총점은 정신병리적 특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YSR 문제행동에 대한 SPQ-B와 SPQ-E의 서로 상반되는 상관관계를 고려한다면, SPQ 하위척도와 정신병리 특성간에는 유의한 의미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한국에서의 중요한 사회문제인 중학생의 문제행동을 음양기질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SPQ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YSR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10.4~19.3%를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음양 기질그룹, SPQ 하위척도 및 성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에 있어서 고른 심신 발달을 유도하고, 성별 및 음양기질 별 맞춤형 관리와 한의학적 심신치료를 적용할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Choi MH, Chae H, Lee SJ.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problem behaviors and Sasang typology in high school students. Integr Med Res. 2016;5(2):110-7.
2. Ministry of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2016.12.20.).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9D%B8%EC%84%B1%EA%B5%90%EC%9C%A1%EC%A7%84%ED%9D%A5%EB%B2%95#undefined
3.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Wee Project, We are the hope. Retrieved from https://www.wee.go.kr/home/main.php
4. Jung H, Ha H-Y, Lee SJ, Chae H.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on K-CBCL Scales. J Pediatr Korean Med. 2013;27(2):1-10.
5. Lee SJ, Sim Y, Kim HJ, Kim HJ, Kim MG, Kim KS, Chae H. Analysis of 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Problem Behaviors of Sasang Types in a Child Clinical Sample. J Pediatr Korean Med. 2013;27(1):7-14
6. Ha H-y, Jung H, Lee SJ, Chae H. Studies on Relations between Goodness of Fit in Mother-children Temperament Interaction and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J Pediatr Korean Med. 2013;27(2):11-9.
7. Lee SJ, Cloninger CR, Cloninger KM, Chae H.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for Integrative Medicine. J Orient Neuropsychiatry. 2014;25(3):213-24.
8. Lee SJ, Park SH, Chae H. Biopsychological structure of Yin-Yang using Cloninger's Temperament model and Carver and White's BIS/BAS scale. PeerJ. 2016;4:e2021.
9. Chae H. The multidisciplinary study on Sasang typology. Integr Med Res. 2015;4(1):1-3.
10. Chae H, Lee S, Park SH, Jang E, Lee SJ.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ersonality assessment instrument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2;2012;657013.
11. Lee SJ, Choi MH, Chae H. Biopsychological structure of the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 Pediatr Korean Med. 2017;13(1):12-24.
12. Lee SJ, Yun BM, Choi YJ, Choi YJ, Yoon YJ, Hwang BK, Chae H. Biopsychological Validation of the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in Middle School Students. J Sasang Const Med. 2016;28(3):246-57.
13. Lee SJ, Han SY, Lee Y-J, Ko Y-S, Bae N, Cheon J, Chae H. Validation of the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in high school students. Integr Med Res. 2016;5(4):259-66.
14. Lee SJ, Park SH, Cloninger CR, Kim YH, Hwang M, Chae H. Biopsychological traits of Sasang typology based on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and body mass index. BMC Complement Altern Med. 2014;14;315.
15. Chae H, Kown Y. Best-fit index for describing physical perspectives in Sasang typology. Integr Med Res. 2015;4(1):20-8.
16. Chae H, Kim YH, Park SH, Hwang EH, Kwon YK, Lee SJ. Study on the Effects of Sasang Psychobiological Factors on General Health Status. Korean J Orient Physiol Pathol. 2014;28(4):452-9.
17. Achenbach TM, Rescorla L. Manual for the ASEBA school-age forms & profiles: an integrated system of multi-informant assessment. Burlington, VT: ASEBA 2001:238.
18. Scheper FY, Majdandžić M, van de Ven PM, Jansen LM, Doreleijers TA, Schuengel C, de Vries AL. Temperament Traits and Psychopathology in Young Clinically Referred Children Compared to a General Population Sample. Child Psychiatry Hum Dev. 2017:1-10.
19. Kim SJ, Lee SJ, Yune SK, Sung YH, Bae SC, Chung A, Kim J, Lyoo I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ogenetic temperament and character and psychopathology in

adolescents. Psychopathology. 2006;39(2):80-6.
20. Jung S-A, Lee SJ. The effects of personality and parenting on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 J Clin Psychol. 2016;35(2):499-518.
21. Kim H, Lee S. Comparison of Temperaments and Characters Between the Children with Conduct Problem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2016; 8(4):183-98.
22. Kim K-H. The effect of temperament/character dimensions for adaptive problem in psychiatric adolescents. Kor J Clin Psychol. 2013;32(2):455-64.
23. Choi JY. Clinical Features according to Temperament Clusters in Depressive Disorder. Kor J Clin Psychol. 2016;35(4):711-22.
24. Lim YK, Choi YM, Choi JY. The Relationship among Temperament, Character, Coping Style, and Depression in Depressive Patients. Kor J Clin Psychol. 2013;32(2): 331-50.
25. Yu SJ, Cheon Jh, Kim KB. Research for health examinations for infants and children by Korean medicine. J Pediatr Korean Med. 2016;30(2):10-22.
26. Lee M, Bae NY, Hwang M, Chae H.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igestive Function Assessment Instrument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asang Digestive Function Inventory.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3;2013;263752.
27. Chae H, Lee SJ, Park SH, Jang ES, Lee SW. Validation of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 with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on Schedule and Body Mass Index. J Sasang Const Med. 2012;24(2):39-46.
28. Chae H, Kim SH, Han SY, Lee SJ, Kim B, Kwon Y, Lee SJ. Study on the psycho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Sasang Typology based on the type-specific pathophysiological digestive symptom. Korean J Orient Physiol Pathol. 2014;28(4):417-24.
29. Han YR, Lee HB, Han SY, Kim BJ, Lee SJ, Chae H. Systematic review of type-specific pathophysiological symptoms of Sasang typology. Integr Med Res. 2016; 5(2):83-98.
30. Lee SJ, Kim SH, Lim N, Ahn MY, Chae H. Study on the difference of BIS/BAS scale between Sasang types.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5;2015;805819.
31. Oh KJ, Kim YA. Korean version of Youth Self Report. Seoul: Huno Consulting Inc. 2011.